朝鮮日報

發行所 서울市太平路一街六一 朝鮮日報社 編輯局(2) 營業局(2) 電話 月定購讀料 …

年頭辭

三八障壁을 打開하자

己丑一年誌

▲一月一日 美國「트」大統領 大韓民國正式承認을發表 ▲三日 中國 大韓民國을承認 ▲五日 反民族行爲處罰法 …

建設에自彊不息

邦家基礎를鞏固케

大統領 李承晩博士 新年辭

擧族的團結로

榮光의大使命完遂를

李國務總理 迎年辭

各界의年頭辭

樂園化를祝願

民聯 金奎植博士

自力自立을

國民會中央本部

增産이急務

民國黨 金性洙氏

健全財政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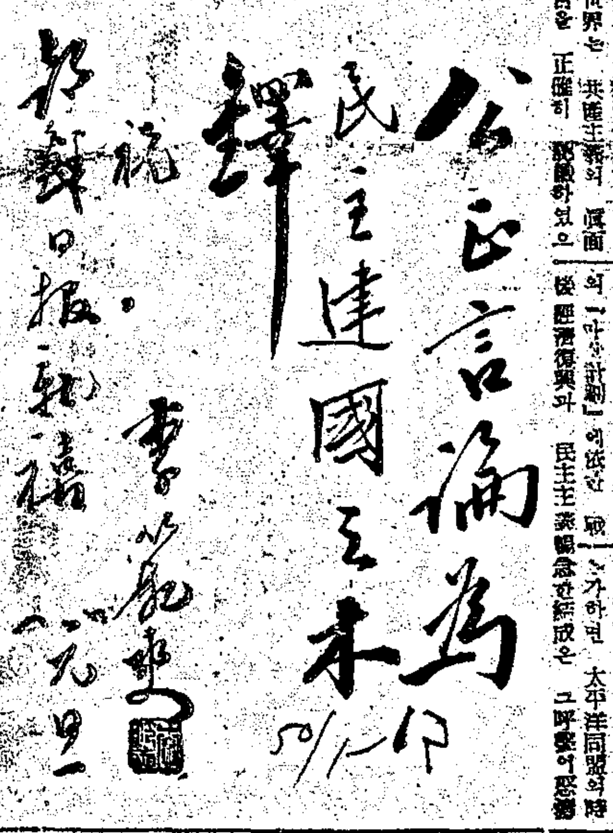
朝銀 崔淳周氏

宿願成就期約

李副統領 年頭辭

民主主義를守護

中國會議長年頭所感



和平統一援助

제솝 会長新年會辭

統一進展希望

렌韓秀事務局長談

UN韓國委員團議長 A·B·제미션

수카르노大統領 「바타비아」에凱旋

今日本紙四面

謹賀庚寅新正

서울特別市中區乙支路二街一四
北鮮製紙化學工業株式會社 서울事務所
社長 禹慈亨
電話(2)8050·8003

서울市中區太平路一街二〇
兵學研究社
電話(2)1295·723

서울市中區太平路一街一六
三興實業株式會社

大韓電業團
朝鮮電氣株式會社
京城電氣株式會社
南鮮電氣株式會社
西鮮合同電氣株式會社
委員長 徐珉…

서울市太平路一街六一番地
株式會社 天友社
社長 全澤珪
電話本局(2) 四一 七五 七一 九八

輸出入業
北星物産株式會社
取締役社長 孫利植
專務取締役 尹甲壽
常務取締役 咸亨俊

人心振作이 緊要

金內務長官 新年辭

我國「인도」國을承認

卅一日附로正式通告

「인도네시아」合衆國承認問題에關하여 政府에서는 卅日國務會議를開催하고 世界各國에앞서 이를承認하기로決議하고 三十一日附로「인도」國政府에正式承認通告를하였는데 通告電文內容은 다음과같다

本官은 大韓民國政府가「인도네시아」合衆國政府를 正式으로承認하는것을 通告하게됨을 光榮으로생각하는바입니다 本官은「인도네시아」의獨立完成을 祝賀하는同時에 新「인도네시아」合衆國國民과政府의繁榮을 衷心으로祈願하는바입니다 大韓民國은 貴國이繁榮한友邦으로서 永久히親交가있기를 期待하는바입니다

檀紀四二八二年十二月三十一日 大韓民國外務部長官 林炳稷

「자카르타」市 인도네시아合衆國 外務部長官「모하메드·핫타」閣下

弱少民族에感激

林外務長官談話

版權許可變更保留

李公報處長

國軍本領發揮

申國防長官年頭辭

國府側對印斷交

印政府中共承認에

英聯邦各國 個別로中共承認

越南政府樹立

佛聯邦國으로

超 ... 가되지말라 ... 奴隷가 되지 말아야

美大統領敎書

關議에서審議通過

庚寅年種種의故事

樂 寅 普

(以下廣告)

重要物資의 生産配給狀況

佛비도內閣 二次信任獲得

八 面 鋒

躍進富川郡內面貌 (其一)

運輸事業界重鎭

韓興王 泰新貨物社長

豚毛精製의覇王

壯年實業家 孔信澤氏

金鎭澄·閔泰英兩氏

水利事業界에功勞多大

有望한將來가有望한 漢江水利組合

獨立運動에貢獻多大

壯年政治家李裕善國會議員

素砂釀造 殷相氏

料理界의元祖 「一央」의良祥根氏

富川精米 嚴興鳳氏

實農家 金順浩氏

宗敎家 金恩永氏

今 吉 吉 吉

復活大華新公演

艦隊는孝孝

出 演 者:
尹富吉…作·演出
金○相…裝置
洪淸子…按舞
…稀…音樂
尹逸載…照明

豪華舞臺 空前絶後初有의大豪華舞臺

燦爛한陣容은여기에있다

新年4283年에 諸賢께 드리는 우슴福

笑門하니萬福來라 하시였으니 온家가 오시여

즐기실수있는 새해福노리

우슴의名콤비 尹富吉과 桂壽男 ○ 崔丙浩 ★ 主公의노래 李花子 ★ 춤의名花 洪淸子

31日부터 株式會社 興行 企劃 李圭男 首都劇場

新正特別興行

美國M.G.M映畵

國文語版

라―산의 黃金

主演 男快 쵸―니·와이스뮤라―

助演 少年 모―린·오설이바 존·규휘―르드

美々輕音樂團

코믹쇼― 마음에엽는사랑

池敏愛 金玉春 王淑娘 孫夕峰 玄○○ 李○仁 外多數

제일즐겁고 快痛하고 제일재미있는 설구경은

中央劇場

經濟的社交 一流味調 新閑席座 好亦도同伴家族

新 開業

朝鮮料理

三湖館

朴桂月·朴桂花 絶世佳俱艶接待

庚寅은 統一의해 復興의해

希望의새해는왔다!
自力으로 國礎確立에
猛虎之勢로 다같이 突進하자

新年에 모

小寒 六日
忠武公誕生日 七日
十三日
大寒 二十一日
二十四日

"낮술"도 禁止
金內務長官談話發表

舞踏會에 스톱令
三十一日內務長官令으로 示達

一、中央廳新年賀式 第一會議室에서擧行

式順
一、開式
二、奏樂
三、國旗에對한敬禮
四、愛國歌奉唱
五、殉國烈士에對한默念
六、式辭
七、萬歲三唱
八、奉禮(公務員代表)
九、祝辭(公務員代表)
一〇、萬歲三唱(大統領)
十一、萬歲三唱
十二、奏樂
十三、閉式

市民들게 新年祝賀式

農林新年五大案
土地改革完成等計劃을樹立

一、土地改革完成
二、
三、
四、
五、農業勤勞와自立推進

鄭烈模氏被檢

保聯幹事長 獄中?(十萬圓橫領)

近九割에 到達
二十六日現在

해님갈개事件
被者二名登場

道德進步無罪

寄附强要는 嚴重히處斷

農中增產福票抽籤

軍人遺家族에 溫情의손길
援護會서餅을配付

ECA韓國援助의業績 (一)
白斗鎭

長篇小說 群像 (172)
朴泰遠 作
金奎澤 畫

第十章 (十六)

(以下廣告)

躍進富川郡面貌 (其二)

忠實한牧民官
姜海昇 富川郡守

民心安定과 啓蒙에注力
素砂邑長 金泰?氏

面政復興에努力

青年運動先驅者 素砂劇場

民指導에注力

紹介版을내면서

京仁線素砂驛前 富川郡園藝組合 組合長 李宙鎔
富川木材商會 元容善 鄭亭錫
京仁線素砂驛前 五輪工業社 主 金世權
朝鮮運輸株式會社 素砂出張所 所長
京仁線素砂驛前 大陸工業所 電話四七番
富川郡食肉商組合
京仁線素砂驛前 韓國豚毛工廠
三和金屬製作所
素來酒株式會社
國民會富川郡支部
一民主義普及會富川郡支部
民主國民黨富川郡黨部
大韓勞總素砂地區聯盟
大韓青年團富川郡團部
株式會社朝興銀行素砂支店 電話一七番
歸屬農地管理素砂事務所
富川郡素砂學校
京仁線素砂驛前 三和商事 電話八番
醫院
蘇萊醫院
京仁藥房
永信堂藥房
大一鍼灸療
素砂
梧柳精米所 主 李殷哲

待望의著 發刊!
農本社長 辯護士 蘇完奎先生著
우리民族의살길
民族의살길은 오로지 人生觀 民族觀 政治觀을正視하는데 있다할것이다! 本著는解放前後를 通하여 唯一한民族의 設計圖를 그린名書로써 法曹界의 重鎭이며 漢學者인 著者는 왜 모든것을 내어던지고 農村으로들어갔던가? 그의眞摯한 研究發表와 아울러 이民族三千萬을爲하여 憂國志士로서의 애끓는 부르짖음을보라
(農地改革 公) 값 300圓 우 50圓
發行 農本社 서울市中區水標洞八五 電本②6231
總販 三一書房 서울鍾路二街九

半島歌劇團
新正大公演
徐林…作•金健…演出•邢奭基…作曲
悲歌劇 月宮에핀꽃 全十六景
(高麗史話에서)
高麗宮中에서비저진눈물의 哀話는드듸여歌劇化! 藝苑의最高峰!
李鍾哲 特別出演
青春의호텔 全景
李鍾哲과그의코메듸쇼―의콤비全員堂堂總出演! 豪華舞臺!
每日午前十一時半開場
每日連續4回公演
李鍾哲의새봄맞이舞台
31日부터 暖房完備 團成社

初正大公演
現代劇 正義者
南慧星作兼演出
8막5장
藝術舞臺公演
1日부터
京都劇場

文化

民族文學樹立의 理念 (上)

廉想涉

年頭懺悔

金晉燮

雪竹圖 雲由 柳德章 畵 (肅宗時人)

달

金岸曙

마음의 봄하늘에 넘치는 뜨는달가
새기을 꽂우레에 꼬피어 실신고야
새노래 가라마초아 달맞이를 하세
고요이 빛을놓며 물우에 달이뜨네
가길로 같은모습 그빛이 밝다시면
거슨물 호끈하야 가실줄이 있으리
몽경의 앞잡이로 즐거이 뛰는이 달
風浪이 거츨이란 노래는 높이하야
그까짓 동트는거야 恨할줄이 있나.

家庭

前進하는 時代와함께

崔貞熙

어린이 차지

팽이

이종성

...게어서, 서울서 언니와 누나가 ...거운 설날입 ...집안 식 ... 맛있게 ...니다. 철이 ...며 먹고, 맛 ...먹는것도 좋았지만 각재는 그보다도 언니와 누나와 같이 설을지낸 것이 더 즐거운 것이었읍니다.

『언니 서울은 부산보다 더 좋구지?』

『그럼 아주 치울때는 영하 이십도도 더 나려간다』

『그러구 눈도 많이나 린다지?』

『응, 함박눈이 펑펑나리면, 참말 마음이 상쾌하지……』

『그러구 전차도 부산전차보다 퍽크구지?』

『응, 가운데에 줄이달린 ... 전차가 다닌다』

언니의 이야기는 즐겁습니다. 각재도 어서크면 언니같이 서울로 공부를 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겨울이되면 흰 함박눈이 펑펑 내리고, 파—란 ...에 줄이달린 커다란 전차가 다닌다는 서울에 무척 가보고 싶습니다.

...대가 가까웠을때, ... 누나는 손에 제 ... 큰벽에 제배를 가게 되었읍니다. 각재도 ...하고 싶었읍니다. ...만 큰 벽에가자면 ...을 걸어야하고 또 ...를 타고 하자면 ...이니까 각재는 가 ...이마에 나하고 같이 가자는 어머니의 말씀이십니다.

『그래라응, 각재야. 내 팽이살 돈주께 팽이나치며 집에서 놀구있어』

하시며 언니는 돈백원을 각재에게 주셨읍니다.

언니와 누나가 집을나가고 나니 각재는 쓸쓸한것 같았읍니다. 언니가 주신 돈을들고 구멍가게에 갔읍니다. 대포 탄환같이깍은 박달나무 팽이를 사가지고 팽이채를 만들었읍니다.

그리고 명히네집앞에 전에서 여러 아이들과 팽이를치며 놀았읍니다.

저녁때까지 각재는 신나게 팽이를치며놀았읍니다.

그러나 각재는 이날큰일을 저즐렀읍니다. 대체무슨일을 저즐렀을가요? 그 이야기는 어머니에게 듣기로 하십시다.

밤이되어서 큰벽에갔던 언니와 누나는 돌아왔읍니다. 각재는 언니와누나가오기를 기다리다 기다리다 잠아들고말았읍니다. 각재가 잠든 머리맡에서 어머니와 언니와 누나가앉아서 지금각재의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

『글세 각재란놈좀 보아라. 팽이를 치고 놀다가 어떤일인지얼굴이샛파래가지고집으로뛰어들어 오지않았겠니. 그래서캐어 물었더니 팽이는힘을주어 쳤더니팽이가 날아가서 명히네유리창을 깨트렸다구하면서 집안나서 우는구나……』

언니와 누나는 우스워서 못견딥니다. 작난꾸레기각재가 정월 초하룻날부터 일을 저즈르는 것이귀엽기도하고 우스운것이었읍니다.

유리를깨트리고온 각재는 어머니는 막 야단을 치셨다고 합니다. 이제나이도 한살 더 먹었으니 네가 저즈른 일은 네가 처리하라고 하시며 명히네집에 가서 잘못했다구 빌고 오라고하셨읍니다.

각재는 할수없이 머리를숙이고 명히네집으로빌러 갔읍니다.

어머니는각재가 명히네집에가서무어라고 빌고있을런지 각재의 모양을생각하고혼자서 우스워 하셨읍니다.

『그래명히네 집에가서 무어라고 빌었대요?』

하고 누나가 어머니에게물어봅니다.

잘못했어요. 이제 다신 안그럴께요 하고 비니까 명히어머니가 어떻게말씀을 하셨다구 합니다.

『괜찮다 사내대장부는 그렇게 막놀아야 하는 법이다』

하며 껄껄 웃었다구고하며 각재는 안심한듯이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보고하였다는 어머니의 말씀이십니다.

언니와 누나는 막 우스워 못견딥니다. 잠든각재의 얼굴을 드려다보며 자꾸웃었읍니다.

벌집에서 아마 웃음이 나옵니다. 깔깔깔.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멀—리 바다에서붕붕붕 발동선소리도들려오는밤입니다.

동요 새해맞이

윤석중

설날 아침 하늘을 떠도는 새야.
너희들은 어디서 설을쇠느냐.
멀리 바라 보이는 푸른 수풀 속
둥지에서 새해를 맞았읍니다.

설날 아침 하늘을 떠도는 새야.
너희들은 어디다 세배하느냐.
아기네도 뒤들도 잠이 깬 마을
굽어보며 공손히 절을 합니다.

新刊紹介

祝 願 國 運 發 展 庚 寅 年

圖書出版 宣文社 社長 尹景燮 營業部長 李宗珪 編輯部長 池金松

株式會社 柳韓洋行 製藥·貿易

京城新藥社 서울市西大門路二街一

養蜂業 製菓業 만나莊 柳俊錫 서울市明倫洞

清酒 月宮 藥酒 甘露 醸造元 大韓酒造株式會社 서울特別市龍山區桃花洞一六 電話 龍山 (4) 二七一六番

서울特別市中區南大門路一街二八番地 高麗興業株式會社 取締役社長 朴亨俊 電本(2)三三六三·一五四五番

大韓水利組合聯合會 朝鮮農地開發營團 朱碩均

서울市中區小公洞一一六番地 東亞商事株式會社 社長 李漢垣

活版地金 印刷材料 姜善鎬商店 서울特別市西大門區忠正路三街 電話光化門 (3) 二一四一

高麗映畵株式會社 社長 崔完奎

高麗映畵 C·I·K 프로덕슌 代表 崔寅奎

東一商事株式會社 東一百貨店 서울·종로

和信產業株式會社 株式會社 和信百貨店